

## 黃庭堅의 書藝詩 研究\*

禹 在 鎬\*\*

<目次>

I. 序論	1. 學書에 관하여
II. 연구대상 및 범주	2. 品書에 관하여
III. 黃庭堅 書藝詩를 통해본 황정건의 서예관	3. 論書에 관하여
	IV. 結論

### I. 序論

黃庭堅(1045~1105, 字가 魯直, 號는 山谷道人 또는 涪翁)은 蘇軾과 함께 ‘蘇黃’으로 불리었으며, 秦觀·晁補之·張耒와 합하여 ‘蘇門四學士’로도 칭하여졌던 송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다. 그는 시인으로서는 江西詩派의 우두머리로 송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학가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독특한 글씨로 인해 송대에서 가장 특이하고 독특한 서체를 구현한 서예가로도 유명하였다. 특히 중국 예술 문화에 있어서 황정건의 가장 큰 기여는 山谷體라 칭해지는 대담하고 비대칭적 서예이다. 길게 이어지며 굽이치는 필획들은 전통적 방식이 아니었으나, 오늘날 그의 스타일은 중국 서예사에 있어 가장 특이한 성취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서예 실천을 통하여 중국 서예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황정건의 초서는 놀란 뱀이 움직이는 듯한데, 이 인간 세상에 떠돈 지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教授

가 몇 년이나 되었던가.”<sup>1)</sup> 이 시구는 元대의 詩僧 釋大圭가 황정건의 초서를 보고 읊은 절구의 앞부분으로, 황정건 초서의 신묘하고 뛰어난 점을 칭찬한 부분이다. 釋大圭의 <초성 황산곡(山谷草聖)>처럼 황정건 사후에 황정건 서예를 읊은 시들도 매우 많이 창작되었지만, 황정건 자신이 위대한 서예가였기 때문에 황정건 자신이 창작한 서예시 또한 적지 않다.

宋代의 서예시를 개관해볼 때, 梅堯臣 이전에는 서예시를 창작한 시인이 거의 없었고,<sup>2)</sup> 매요신 이후 北宋 四大書藝家라 불리는 蘇軾, 黃庭堅, 米芾, 蔡襄 등이 서예시를 다수 창작하였으므로,<sup>3)</sup> 이들의 시에는 자신의

- 1) 釋大圭, 《夢觀集》卷5, 칠언절구 <초성 황산곡(山谷草聖)> “涪翁醉墨動驚蛇, 流落人間幾歲華.” 여기서 醉墨이란 狂草를 말하며, 황정건은 결코 취한 후에 초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개원사의 이시당에 우거하였을 때, 앉아서 강산을 보면서 매번 이 속에서 초서를 쓰면 마치 강산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미치광이 장사 장육이나 광승 회소는 모두 술에 의지하여 신의 경지에 통하고 기묘함에 도달하였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은 지 문득 15년이나 되었는데, 비록 그들이 했던 일을 좋게 여기고자 하였으나 기량이 순조롭지 않아 행필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 걸리고 넘어졌으므로, 마침내 취한 상태에서 글씨 쓰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余寓居開元寺之怡偃堂, 坐見江山, 每於此中作草, 似得江山之助. 然顛長史狂僧皆倚酒而通神入妙. 余不飲酒, 忽十五年, 雖欲善其事, 而器不利, 行筆處時時蹇蹶, 計遂不得復如醉時書也.)” 驚蛇는 초서가 통쾌하고 유창하여 자연스러운 운치를 얻었음을 비유한다. 이 시의 뒤 구절은 다음과 같다. “늘 걱정하였네, 불의 신이 번개와 우레를 내려쳐, 용으로 변해 옥황상제의 집으로 날아갈 것을.(長恐六丁起雷電, 為龍飛去玉皇家.)”
- 2)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中國語文學》 第5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0.6), 177쪽
- 3) 《全宋詩》(全72卷, 第17冊, 北京大學出版社, 1998)에서 우선 詩題를 중심으로 내용을 참고하여 서예시를 선별해 보았을 때, 북송 사대서예가들이 남긴 서예시의 양은 대략 蘇軾이 58수, 黃庭堅 50수, 米芾 23수, 蔡襄이 5수 정도였다. 특히 미불은 현존하는 시가 총 244수인데,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가 23수나 되므로, 전체 시에서 차지하는 서예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론 文房四友를 읊은 시를 서예시에서 제외한다면 시수는 달라질 수 있다.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 202쪽에서는 송초 사대서예가들이 남긴 서예시의 양을 대략 蘇軾 46수, 黃庭堅 34수, 米芾 23수, 蔡襄 5수로 산정하였으나, 논문을 탈고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서예 및 문방사우를 읊고 있는 소식과 황정건의 시를 더 찾아내어, 시의 총 편수가 늘어나게 되

서예관이나 문필론 등이 잘 담겨져 있다. 물론 황정견이 서화에 쓴 題跋들 속에는 서예와 회화에 관한 본인의 관점, 그리고 그림과 필법의 상징적 특징들을 향한 열정 등이 잘 드러나 있다.<sup>4)</sup> 그러나 題跋 뿐만 아니라 황정견의 시가, 특히 서예와 관련한 시가에도 자신의 서예 이론 등이 잘 담겨져 있다. 黃庭堅의 서예는 중국 서예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서예에 대한 이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서예시를 별도로 분석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黃庭堅의 詩 중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그의 서예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일차저본인 《全宋詩》와 《山谷全集》에 수록된 황정견의 시 중에서 서예시라 할 수 있는 시들을 선별해보고, 추출한 이들 서예시들을 대상으로 역주작업을 진행하며, 번역이 끝난 시들을 대상으로 시의 내용을 분류해보고 황정견의 서예관을 분석해보고자 한다.<sup>5)</sup>

## II. 연구대상 및 범주

황정견의 전체 시 중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현전하는 황정견의 시 1967수 중 45題 50首 정도이다.<sup>6)</sup> 이는 순수 書藝와 書論을 주제로 다룬 시 외에, 紙筆硯墨 등 文房四友를 다루고 있는 시를 모두 포함한 양이다. 단순히 수량으로만 본다면 50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全唐詩》에

었다.

- 4) 황정견이 서화에 쓴 題跋만을 모은 屠友祥 校注의 《山谷題跋》(上海遠東出版社, 1999.1)이란 단행본도 있다. 본고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 책도 참고하였다.
- 5) 본고에서는 황정견의 서예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먼저 書學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보기로 하며, 詩學에 관한 내용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황정견의 題跋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짧은 한 편의 소논문에서 모두 다루기 어려우므로, 서예시와 연관 있는 필요한 題跋만을 다루기로 한다.
- 6) 황정견의 현전 시수는 吳台錫의 《黃庭堅詩研究》(慶北大學校出版部, 1991.5) 3쪽 각주 7)에 나오는 설명을 따랐다.

실린 48,000여수의 시중에서 唐代의 서예시로 선별할 수 있는 시들이 총 91題 92首 정도라는 것과<sup>7)</sup> 매요신의 서예시가 모두 46題 47首인 것과 비교해보면,<sup>8)</sup>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 하겠다.

시 속에 書나 字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이 시를 서예시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서예시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한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詩題와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詩題를 보면서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들을 먼저 추출하고, 내용상 서예와 관련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 이 시들도 서예시로 선별하였다.<sup>9)</sup> 황정견의 서예시에는 한 수 전체를 관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서예에 대한 논의를 펼쳐내는 경우는 많지 않고, 서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품평 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0)</sup> 이들 선별한 시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 
- 7)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中語中文學》 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 12.) 148-151쪽에서는 시제와 내용을 고려하여 《全唐詩》에 실린 서예시 총 67제 68수로 선별하였으나, 논문 탈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서예 및 문방사우를 읊고 있는 唐詩 24수를 더 찾아내어, 총 91題 92首가 되었다.
- 8)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中國語文學》 第5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0.6), 178-180쪽
- 9) 본고에서는 《全宋詩》를 기본으로 하여 서예시를 선별하였고, 이들 선별된 시를 다시 文淵閣四庫全書에 수록된 《山谷集》과 대조하였다. 간혹 《山谷集》에 수록되지 않은 시들은 四部備要本 《山谷全集》(上下, 臺灣中華書局, 民國59年 2版)을 참고하였으며, 여기에다 蔡顯良의 《宋代論書詩研究》(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5)의 부록으로 첨부된 <宋代論書詩存目>을 참조하여 보충정리하였다. 본고에서 인용한 권수는 기본적으로 《山谷集》을 저본으로 삼았고,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詩題 뒤에 《全宋詩》 쪽수를 병기하였다.
- 10) 예를 들어 <주법조의 청원산 산사에 노닐다라는 시에 차운하여(次韻周法曹游靑原山寺)>(山谷外集 卷3, 11545쪽)라는 시는 전편이 44句의 장편 五言古詩이지만 서예 관련 내용은中间的 “노국공 안진경의 바위에 새겨진 큰 글씨는, 그 필세가 산이 무너져 내리려는 듯하네.(魯公大字石, 筆勢欲崩摧.)”라는 두 구절,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앞 두 구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4구에 불과하다.

&lt;黃庭堅 書藝詩 一覽表&gt;

	山谷集 卷數	詩 題	詩形	書藝[家]	書體	비고
1	卷2	次韻李之純少監惠硯	七古			硯
2	卷2	題王黃州墨跡後	五古	王禹稱		
3	卷2	次韻王炳之惠玉板紙	七古			紙
4	卷3	謝王仲至惠洮州礪石黃玉印材	七古			印
5	卷4	戲答趙伯充勸莫學書及爲席子澤解嘲	七古	學書		
6	卷5	劉晦叔[許]洮河綠石硯	七古			硯
7	卷8	書磨崖碑後	七古		石刻	
8	卷9	和答錢穆父詠猩猩毛筆	五律			筆
9	卷9	戲詠猩猩毛筆 二首	五律			筆
10						
11	卷9	戲贈米元章 二首	七絕	米芾		
12						
13	卷10	謝益修四弟送石屏	七絕			石屏
14	卷11	求范子默染鴟青紙 二首	七絕			紙
15						
16	卷11	吳執中有兩鵝爲余烹之戲贈	七絕	學書		
17	卷12	題劉將軍鵝	六絕	王羲之		
18	卷12	文安國挽詞 二首	五律	文勛	篆書	
19						
20	卷28	題楊凝式書	七絕	楊凝式	行書	
21	詩集卷6	以團茶洮州綠石研贈無咎文潛	雜言			硯
22	外集卷1	林爲之送筆戲贈	五古	學書		筆
23	外集卷1	自和答爲之	五古	學書		筆
24	外集卷1	再和答爲之	五古	學書		筆
25	外集卷3	長句謝陳適用惠送吳南雄所贈紙	七古			紙
26	外集卷3	奉答茂衡惠紙長句	七古			紙
27	外集卷3	送酒與周法曹用贈潤父韻	五古	學書		
28	外集卷3	次韻周法曹游青原山寺	五古	顏真卿		
29	外集卷3	謝景文惠浩然所作廷珪墨	雜言			墨
30	外集卷4	次韻子瞻書黃庭經尾付蹇道士	七古	蘇軾		

31 32	外集卷4	題畫鵝鴨 二首	五古	王羲之		
33	外集卷6	書扇	七絕	顏真卿		
34	外集卷6	謝送宣城筆	七律			筆
35	外集卷6	王彥祖惠其祖黃州制草書其後	五律	王禹稱	草書	
36	外集卷6	效進士作觀成都石經詩	五排	石經		
37	外集卷7	題馬當山魯望亭四首 其三	六絕	顏真卿		
38	外集卷7	蕭子雲宅	七絕	學書	草書	
39	外集卷7	題子瞻書詩後	六絕	蘇軾		
40	外集卷7	戲贈高述	六絕	高述		
41	外集卷12	觀王熙叔唐本草書歌	雜言		草書	
42	外集卷12	以右軍書數種贈丘十四	七古	王羲之		
43	外集卷12	李君貺借示其祖西臺學士草聖并書帖一編三軸以詩還之	七古	李建中	草書	
44	外集卷12	吉老許惠李北海石室碑以詩促之	雜言	李邕		
45	外集卷12	吉老兩和示戲荅	雜言	王羲之		
46	外集卷12	庭誨惠鉅硯	七古			硯
47	別集卷1	觀祕閣西蘇子美題壁及張侯家墨迹十九紙率同舍錢才翁學士賦之	五古	蘇舜欽		
48	別集卷1	范德孺須筆哀諸工佳者共成十枝分送	七古			筆
49	別集卷2	墨蛇頌	六絕	懷素	草書	
50	別集卷13	題蘇才翁草書壁後并序	七絕	蘇舜元	草書	

만약 이들 45제 50수의 시 중에서 文房四友를 읊은 시 20수를 詠物詩로 보아 제외한다면, 순수한 書藝詩는 30수 남짓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文房四友를 읊은 이 시들 역시 서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서예도구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또 작품 속에 서예와 관계되는 내용이 논급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서예시에 포함시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별된 이상의 시들을 중심으로, 황정건의 서예시를 내용상 크게 學書[서예 학습], 品書[서예 품평], 論書[서예 이론] 등 3개 절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 Ⅲ. 黃庭堅 書藝詩를 통해본 黃庭堅의 서예관

#### 1. 學書에 관하여

황정견의 서예시에는 ‘서예를 학습하다’는 의미의 ‘學書’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이는 황정견이 서예를 시작함에 누구를 학습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학습의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점에 비교적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학서에는 자신이 학습한 서예도 주요 관심 대상이었지만, 타인의 서예 학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우선 황정견은 모범이 될 만한 전대 서예가의 서체를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중 가장 우선 꼽을 수 있는 이가 왕희지였다. “글자 자체에 필봉이 감추어져 빼어나고 굳센데, 누구 글씨를 배웠냐고 물으니 과연 왕희지의 난정서일세.(字身藏穎秀勁清, 問誰學之果蘭亭.)”(〈왕희지의 글씨 몇 종으로 구십사에게 드리다(以右軍書數種贈丘十四)〉 外集 卷12, 11637쪽)라고 한 것처럼, 어릴 때 서예 학습의 전범으로 두어야 할 전대 서예가로 단연 왕희지를 꼽았고, 특히 왕희지의 난정서를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은 왕희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왕희지와 연관된 고사를 인용한 시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용속한 글씨는 난정서의 걸 모양만을 좋아할 뿐, 범인이 환골탈태하고자 하나 영단이 없다네.(俗書喜作蘭亭面, 欲換凡骨無金丹.)”(〈양응식의 글씨에 제하다(題楊凝式書)〉 卷28, 11741쪽)라고 하여 왕희지가 쓴 난정서의 뛰어난 품격을 강조하면서 다른 이들이 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그로 하여금 일찍이 위삭에게 글씨를 배우게 하더라도, 유독 왕희지만이 그를 꺾박할 수 있지 않으리.(使之早出見李衛, 不獨右軍能逼人.)”(〈이군황이 그의 조부 서대학사 이견 중의 초서병서첩 세 축 짜리 한 묶음을 빌려서 보여주었기에 시를 지어 돌려주다(李君貺借示其祖西臺學士草聖并書帖一編三軸以詩還之)〉 外集 卷

12, 11637쪽)라고 하여 李建中의 초서를 극도로 추켜세우면서 비교 대상을 왕희지로 설정한 것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황정견은 왕희지 부자의 여러 법첩에 題跋을 붙인 것이 거의 31번이나 되고, 이 중에서 난정서의 여러 법첩에 발문을 제한 것만 8번이나 되니,<sup>11)</sup> 황정견이 왕희지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그 추존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왕희지가 한 도사에게 도가 경전인 黃庭經을 써주고 거위와 바꾸었다는 고사를 전고로 활용하여서는 “상상해보네, 산음에서 글씨 다 써준 후에, 무리 이끌고 왕희지 자기 집으로 몰아가는 것을.(想見山陰書罷, 舉羣驅向王家.)”(〈유장군의 거위에 제하다(題劉將軍鵝)> 卷12, 11367쪽)라고 하거나, “글씨 배우는 못가에 한 쌍의 거위 있는데, 부드러운 목 서로 비비는 것에 필의가 넘쳐나는구나.(學書池上一雙鵝, 宛頸相追筆意多.)”(〈오집중이 거위 두 마리를 날 위해 삶아주기에 장난삼아 드리다(吳執中有兩鵝爲余烹之戲贈)> 卷11, 11435쪽)라고 노래하는 등, 거위가 등장하면 의례히 왕희지의 글씨를 연결하여 여러 차례 왕희지 서예의 최고 경지를 언급하였다. <진길로가 두 번 화운하여 보여주어 장난삼아 답하다(吉老兩和示戲答)> 外集 卷12, 11639쪽)는 왕희지가 한 도사에게 도가 경전인 黃庭經을 써주고 거위와 바꾸었다는 고사를 주제로 친구의 글씨를 왕희지의 난정서에 비교하며 그 글씨의 수준을 회롱한 시의 일부분이다.

.....

頗似山陰寫道經, 자못 산음에서 도가 경전을 써준 왕희지와 흡사하니,  
 雖與羣鵝不當價. 비록 한 무리 거위라도 그 값이 마땅하지 않겠네.  
 畫沙無地覓錐鋒, 모래에 쓰인 글씨에 송곳 끝을 찾을 땅이 없는데,  
 點勘永和書法同. 점획이 감히 난정서의 서법과 같을 수 있으랴.

.....

때로는 왕희지의 글씨를 최고 전범으로 언급하면서 서예로 상당한 성취

11) 蔡顯良, <黃庭堅論書詩研究>, 《書畫世界》 第8期, 2006.8, 70쪽.

를 이룬 여타 서예가들을 함께 열거하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어릴 때 초성을 본받아 중요와 왕희지를 배웠고, 의지와 기개는 위탄과 장지와 같고 자 하였네.(少時草聖學鍾王, 意氣欲齊韋與張.)”(〈왕희숙이 소장한 당나라 본 초서가를 보다(觀王熙叔唐本草書歌)〉 外集 卷12, 11633쪽)라고 하여 鍾繇와 韋誕과 張芝를 왕희지와 함께 열거하거나, “안진경의 필법은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세인데, 추획사라는 왕희지의 글씨보다 못하지 않네.(魯公筆法屋漏雨, 未減右軍錐畫沙.)”(〈글씨 쓴 부채(書扇)〉 外集 卷6, 11499쪽)라고 하여 顏眞卿 필법의 뛰어난을 강조하면서 그 기준을 왕희지로 설정하여 대비하였다.

이 밖에 황정건은 서예학습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목지와 관련된 고사이다. 황정건은 <술을 보내며 주법조와 함께 윤보에게 드린 앞 시의 운을 쓰다(送酒與周法曹用贈潤父韻)〉(外集 卷3, 11520쪽)에서 “듣자하니 부지런히 서예를 학습하여, 연습한 먹물이 거의 일 경이나 되네. 큰 글자는 아직 심히 굳세지 못하나, 작은 글자는 지영과 근사하구나.(聞道學書勤, 墨池方一頃, 大字甚未邁, 小字逼智永.)”라고 하거나, <범덕유가 여러 뛰어난 장인을 모아 모두 서수필 열 자루를 만들고 이를 나누어 보내주다(范德孺須筆哀諸工佳者共成十枝分送)〉(別集 卷1, 11689쪽)에서는 “열심히 연습하여 서예 학습에 성취 이루었다 하니, 이미 집담으로 장지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네.(臨池聞道學書成, 已許家雞勝伯英)”라고 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부지런히 서예 학습에 힘써야 함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여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부터 차근히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장구로 오남옹이 증정했던 종이를 은혜로이 보내준 진적용에게 감사하며(長句謝陳適用惠送吳南雄所贈紙)〉(外集 卷3, 11522쪽)에서 “어릴 때 쌍구법으로 해서의 서법 배웠는데, 지금에 이르러 아이들은 집담을 싫어하네.(小時雙鉤學楷法, 至今兒子憎家雞.)”라고 하여 쌍구법으로 단정히 붓을 잡고 해서의 서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집담이라 함은 南齊 王僧虔의 《論書》에 나오는 말로,<sup>12)</sup>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

는 서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황정건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전해져 오는 기초가 되는 서예를 충실히 배우고,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정건은 서예 학습의 최고 전범이 되는 전대 서예가로 王羲之를 첫째로 두었고, 그 다음으로 鍾繇, 韋誕, 張芝, 智永, 顏眞卿, 楊凝式, 李建中 등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2. 品書에 관하여

황정건의 서예 작품에 대한 품평은 자연히 學書와도 관련되어 있다. 王羲之나 顏眞卿처럼 서예 작품이 상당한 수준이나 최고 경지에 올라야 서예 학습의 모범이 될 수 있듯, 서예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품평 역시 자신의 서예 수준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정건이 품평한 서예 작품은 전대 대서예가의 필적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동시대를 살았던 당대 서예가의 작품도 있다. 앞 절에서 이미 한 구를 인용한 바 있는, 왕희지의 서예를 배웠던 친구 丘郎(이름이 丘敬和이며, 제

12) 潘運告 主編, 《漢魏六朝書畫論》(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11.6, 9刷), 160-171쪽. 王僧虔, 《論書》“유정서 익의 서예는 어릴 때 왕희지와 이름을 나란하였다. 후에 왕희지가 진보하였으나 유익은 오히려 시기하지 않았다. 형주에서 부하에게 쓴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이들은 집담을 천시하고 들오리를 사랑하여 모두 왕희지의 서예를 배웠다. 내가 돌아가서 그와 비교해 보겠다.’(庾征西翼書, 少時與右軍齊名, 右軍後進, 庾猶不忿. 在荊州與部下書云, 小兒輩乃賤家鷄, 愛野鶩, 皆學逸少書. 須吾還, 當比之.)” 집담이란 이 말은 후에 柳宗元이 <은현이 쓴 글씨를 장난삼아 평한 후 연주자사 유우석에게 보내며 아울러 맹과 룬 두 아이에게도 보이다(殷賢戲批書後寄劉連州并示孟崑二童)>라는 시에서 “듣건대 근래 여러 자제들이, 서예를 배움에 집담[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서법]을 싫어한다 하네(聞道近來諸弟子, 臨池尋已厭家鷄)”라는 두 구절에서도 사용하였다. 劉禹錫은 유종원의 이 시에 회답하여 또 다시 <유종원이 집담이란 시를 보낸 것에 수답하다(酬柳柳州家雞之贈)>라는 시를 지어 보냈는데, 뒤 두 구절은 유종원의 뛰어난 서예에 탄복하며, 자신도 기꺼이 그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시이다. 楊克炎 選注, 《書法詠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36-39쪽.

목에 보이는 구십사)에게 준 <왕희지의 글씨 몇 종으로 구십사에게 드리다(以右軍書數種贈丘十四)>(外集 卷12, 11637쪽)에서는 왕희지 서예에 대한 평가가 잘 드러나 있다.

丘郎氣如春景晴,	구랑의 기개는 마치 맑은 봄 경치와 같아서,
風暄百果草木生.	바람 따뜻하여 온갖 과일과 초목이 자라나네.
眼如霜鶴齒玉冰,	눈빛은 가을 매 같고 치아는 청결하고 가지런하며,
擁書環坐愛窗明.	책을 들고 둘러앉아서 밝은 창을 좋아하네.
松花泛硯摹眞行,	송화지 펼치고 베투 같아 해서와 행서를 모사하니,
字身藏穎秀勁清,	글자 자체에 필봉이 감추어져 빼어나고 굳센데,
問誰學之果蘭亭.	누구 글씨 배웠나 물으니 과연 왕희지의 난정서일세.
我昔頗復喜墨卿,	나도 옛날에는 자못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여,
銀鈎蠶尾爛箱籬,	굳세고 힘 있는 글씨가 상자 안에 가득 하였기에,
贈君鋪案黏曲屏.	그대에게 안석을 펼쳐주고 접는 병풍을 드렸었지.
小字莫作癡凍蠅,	작은 글씨는 움츠린 겨울 파리처럼 쓰면 안 되니,
樂毅論勝遺教經.	악의론이 불유교경보다 훨씬 더 낫다네.
大字無過瘞鶴銘,	큰 글자는 예학명을 능가할 것이 없으며,
官奴作草欺伯英.	왕헌지가 쓴 초서는 장지를 능가하네.
隨人作計終後人,	남을 따르려 하다가는 결국 남보다 뒤처지니,
自成一家始逼真.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야 비로소 뛰진하다네.
卿家小女名阿潛,	경의 집안 어린 소녀 이름이 아잠인데,
眉目似翁有精神.	이목구비 옹과 같아 정신이 있다네.
試留此書他日學,	이 글씨 남겨 두었다 다른 날 배운다면,
往往不減衛夫人.	이따금은 위부인보다 못하지 않으리라.

이 시의 주된 창작 목적은 매우 명확하여, 황정견은 전대의 대서예가를 학습함에는 神韻이 서로 통합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왕희지를 비롯하여 王獻之, 張芝, 瘞鶴銘 등의 글씨 수준과 小楷·大字·草書의 상호 우열을 품평하고 있다. 황정견에게는 일찍이 이 시를 논급한 <論作字>와 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조미숙(이름은 端彥)은 일찍이 내가 ‘글씨에는 오로지 신운이 있을 뿐이니, 왕희지의 파과 점획

같은 필법에 이른 것은 한 작품도 없다'고 한 말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하였다. 나에게 동조하는 어떤 이가 진류에서 이 같은 말을 나에게 전해 주었는데, 나는 웃으면서 '조미숙의 글씨가 왕희지와 합치되는 것은, 우맹이 손뼉을 치고 이야기하며 흥내 내는 바로 그 손속오가 아니겠는가? 이전에 일찍이 구경화란 이가 왕희지 글씨의 필의를 모방하였는데, 윤택하기는 하였지만 법도에 너무 얽매어 대강을 얻지 못하였다. 나는 일찍이 구경화에게 시를 지어 주었으니, 그 속에는 "글자 자체에 필봉이 감추어져 빼어나고 굳센데, 누구 글씨 배웠냐고 물으니 과연 왕희지의 난정서일세. 큰 글자는 예학명을 능가할 것이 없으나, 당대 만년에 대당중흥송 석각이 있었는데. 작은 글씨는 움츠린 겨울 파리처럼 쓰면 안 되니, 악의론이 불유교경보다 훨씬 더 낫다네. 남을 따르려 하다가는 결국 남보다 뒤처지니,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야 비로소 펴진하다네."라는 내용이 있었다. 조미숙이 일찍이 이 의론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라 하였는데,<sup>13)</sup> 이題跋은 위에서 인용한 시와는 약간의 출입이 있지만,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樂毅論과 遺教經은 모두 왕희지의 법첩인데, 악의론은 왕희지 正書 가운데 으뜸이라 이야기되는 小楷書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희지가 永和 4년 12월에 쓴 글씨라고 하며, 褚遂良이 이를 칭찬하여 "필세가 정묘하여 해서의 법칙을 모두 갖추었다."고 극찬한바 있다.<sup>14)</sup> 遺教經은 바로 佛遺教經인데, 역시 小楷書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희지가 永和 12년 6월에 쓴 글씨라고 하지만, 이 글씨는 비교적 부자연

13) 《山谷全集·別集》卷六, <論作字> “晁美叔嘗背議予書唯有韻耳, 至於右軍波戈點畫, 一筆無也. 有附予者傳若言於陳留, 余笑之曰: ‘若美叔書即與右軍合者, 優孟抵掌談說, 乃是孫叔敖耶?’ 往嘗有丘敬和者摹仿右軍書, 筆意亦潤澤, 便為繩墨所縛, 不得左右. 予嘗贈之詩, 中有句云: ‘字身藏穎秀勁清, 問誰學之果蘭亭. 大字無過瘞鶴銘, 晚有石崖頌中興. 小字莫作癡凍蠅, 樂毅論勝遺教經. 隨人作計終後人, 自成一家始逼真.’ 不知美叔嘗聞此論乎?”

14) 潘運告 主編, 《初唐書論》(中國書畫論叢書, 湖南美術出版社, 2011.6, 9刷), 48쪽. 唐 褚遂良, 《拓本樂毅論記》“筆勢精妙, 備盡楷則也.”

스러워 歐陽脩는 왕희지의 글씨가 아닌 唐代 寫經人의 글씨라고 여겼다.<sup>15)</sup> 이 시에서 황정건은 丘敬和의 글씨뿐만 아니라, 일품이라 평해지는 왕희지의 小楷書인 樂毅論과 遺教經, 王獻之와 張芝의 草書, 그리고 大字인 瘞鶴銘 등을 서로 비교하며 품평하고 있다.

왕희지 이외에, 황정건이 인정한 唐代의 서예가로는 懷素와 顏真卿과 楊凝式과 李邕 등이 있는데, 안진경에 대해서는 “안진경의 필법은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세인데, 추획사라는 왕희지의 글씨보다 못하지 않네.(魯公筆法屋漏雨, 未減右軍錐畫沙.)”(〈글씨 쓴 부채(書扇)〉 外集 卷6, 11499쪽)라고 하여 안진경 필법이 왕희지에 버금가는 自成一家의 필법이라고 평하였고, 양응식의 서예에 대해서는 <양응식의 글씨에 제하다(題楊凝式書)〉(卷28, 11741쪽)와 <이군황이 그의 조부 서대학사 이건중의 초서 병서첩 세 축 짜리 한 묶음을 빌려서 보여주었기에 시를 지어 돌려주다(李君貺借示其祖西臺學士草聖并書帖一編三軸以詩還之)〉(外集卷12, 11637쪽)라는 시에서 모두 양응식을 극도로 칭찬하여, 양응식의 서예 성취가 전대 대서예가의 모양보다는 정신을 취하였다고 매우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는 神似(정신을 닮음)를 중시하고 形似(모양만 닮음)를 경시했던 황정건 서예론의 일관된 주장과 합치하고 있다.

宋代 서예가들에 대해 품평한 시들도 여러 수 있는데, 동시대의 대표적 서예가로는 李建中, 王禹稱, 蘇才翁[舜元], 蘇舜欽[子美], 王安石, 蘇軾, 米芾 같은 유명인들의 서예에 대한 품평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건중의 목적을 감상 품평하고 난 뒤에 개인적 소회를 읊은 <이군황이 그의 조부 서대학사 이건중의 초서 병서첩 세 축 짜리 한 묶음을 빌려서 보여주었기에 시를 지어 돌려주다(李君貺借示其祖西臺學士草聖并書帖一編三軸以詩還之)〉(外集 卷12, 11637쪽)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한다.

15) 歐陽脩, 《歐陽脩全集》(上·下, 世界書局, 中華民國72年, 臺北) 1210쪽, 《集古錄跋尾》 卷10, “右遺教經, 相傳云羲之書, 僞也. 蓋唐世寫經手所書爾.” 이 내용은 《山谷題跋》(屠友祥 校注, 上海遠東出版社, 1999.1) 卷4, 112-113쪽에도 언급되어 있다.

當時高踏翰墨場, 당시 수준 높은 고답적인 서단에서,  
 江南李氏洛下楊.<sup>16)</sup> 강남의 이육과 낙양의 양응식이 있었다네.  
 二人歿後數來者, 두 사람이 죽은 후 몇몇 후인이 있었지만,  
 西臺唯有尚書郎, 오직 상서랑인 서대 이건중이 뛰어났다네.  
 篆科草聖凡幾家, 전서와 과두문과 초서에서 몇몇 대가를 섭렵하여,  
 奄有漢魏跨兩唐, 한위를 모두 소유하고 당과 후당을 뛰어 넘네.  
 紙摹石鏤見髣髴, 종이와 석각 모사품도 흡사 진품인 듯 유사하지만,  
 曾未得似君家藏, 일찍이 그대 집의 소장품에 비교할 수가 없네.  
 側釐數幅冰不及, 몇 폭의 측리지는 얼음보다 더 맑고 깨끗하며,  
 字體軟傾墨猶濕, 자체는 변화무쌍하고 먹빛은 아직도 젖은 듯하네.  
 明窗棊几開卷看, 밝은 창문 비자나무 궤에 두루마리 열어 보니,  
 坐客失牀皆起立, 앉은 손님들이 자리를 털고 모두 일어나네.  
 新春一聲雷未聞, 새봄에 우레 소리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데,  
 何得龍蛇已驚蟄, 어찌하여 용과 뱀이 칩거에서 놀라 나왔는가.  
 仲將伯英無後塵, 위탄과 장지 이후로는 따르는 이가 없었는데,  
 邇來此公下筆親, 근래에 이 분께서 붓을 대어 이들에게 접근하였네.  
 使之早出見李衛, 그로 하여금 일찍이 위삭에게 글씨 배우게 하더라도,  
 不獨右軍能逼人, 유독 왕희지만이 그를 꺾박할 수 있지 않으리.  
 枯林棲鴉滿僧院, 마른 숲에 깃든 까마귀는 승원에 가득하나,  
 秀句爭傳兩京遍, 뛰어난 시구는 다투어 두 수도에 두루 전하였네.  
 文工墨妙九原荒, 빼어난 문장과 교묘한 글씨 온 중국에 성하였으나,  
 伊洛氣象今淒涼, 이수와 낙수의 그의 기상이 지금은 처량해졌네.  
 夜光入手愛不得, 야광주를 입수한 듯 이를 아껴 내려놓을 수 없는데,  
 還君復入古錦囊, 도리어 그대는 다시 옛날 비단 주머니에 넣어두네.  
 此後臨池無筆法, 이후로는 목지에 필법이 없으리니,  
 時時夢到君書堂, 항상 꿈에서라도 그대의 서당에 와야 하리라.

16) 강남이씨낙하양(江南李氏洛下楊) 이 구절은 ‘天下最數沈與楊(천하에서 최고로 꼽는 이 沈傳師와 양응식이라네)’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강남 이씨는 南唐 後主 李煜을 가리키고, 낙하양은 낙양 사람 楊凝式을 가리키는데, 이육과 양응식 두 사람은 五代의 가장 유명한 서예가였다. 이육 역시 글씨를 잘 써서 그의 글씨는 “떨려 진동하고 나뭇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굽은 모양으로 썼는데, 굳세고 힘 있음이 겨울 소나무나 서리 맞은 대나무와 같았으니 이 서체를 금착도라 일컬었다.(作顫筆樛曲之狀, 適勁如寒松霜竹, 謂之金錯刀)”고 하였다.

李建中(945~1013)은 자가 得中이며, 스스로 巖夫民伯이라 칭하였던 송초의 저명한 서예가로, 상서랑 관직을 지냈고 전후 세 차례나 西京의 御史臺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李西臺라고 칭하였다. 蘇軾이 李建中の 서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과는 달리,<sup>17)</sup> 황정건은 그의 서예를 비교적 훌륭하게 여겼다. 그는 일찍이 <상첩의 여러 공들 글씨에 쓴 발문(跋湘帖羣公書)>에서 “서대 이견중의 글씨는 무리를 벗어나 우뚝 뛰어나니 살이 있어도 불필요한 지방이 없어서, 마치 세간의 미녀처럼 풍성한 몸매이지만 생기 있고 맑고 빼어나다.”고 하였는데,<sup>18)</sup> 이 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대표 작품을 감상한 후에 경모하고 감동하는 감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 여덟 구는 이견중의 서단에서의 지위와 그가 남긴 유묵의 수준을 서술함으로써 이를 빌려 보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중간 열 구절은 감상하는 작품이 마음을 격동시킴을 서술하여 고상하고 출중한 이견중 서예를 묘사하였으며, 마지막 여덟 구는 목적을 돌려준 후의 감개를 쓰고 있다.<sup>19)</sup> 이 歌行體 시는 전체적으로 결구와 맥락이 분명하고 곡절과 변화가 많으면서, 이견중 서예의 뛰어난 점을 전대 서예가와 비교하며 극단적으로 잘 품평하고 있다고 하겠다.

### 3. 論書에 관하여

황정건의 논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學書와 品書와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한 수의 시속에 서예 학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 뛰어난

17) 李福順 編著, 《蘇軾與書畫文獻集》(榮寶齋出版社, 2008.6, 北京)과 《蘇軾文集》(全6冊, 孔凡禮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2.9, 3版, 北京) 속의 66卷에서 71卷의 《東坡題跋》 등을 일별해보아도 李建中 서예에 대한 소식의 시문은 보이지 않는다.

18)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上海遠東出版社, 1999.1) 卷5, 149쪽. <跋湘帖羣公書> “西臺出群拔萃, 肥而不剩肉, 如世間美女, 豐肌而神氣清秀者也.”

19)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99쪽.

전대 서예가의 서예 작품을 품평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 속에는 황정건의 서예에 대한 이론, 즉 서론이 은연중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앞 절에서 인용했던 <왕희지의 글씨 몇 종으로 구십사에게 드리다(以右軍書數種贈丘十四)>(外集 卷12, 11637쪽)에서 단지 전대 서예 작품의 모양만 비슷해지기를 구하는 것은 優孟이 孫叔敖의 의관을 입고 흉내 내는 것처럼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므로 고인의 작품을 학습함에 神韻이 상통함을 구해야 한다고 한 것과 <양응식의 글씨에 제하다(題楊凝式書)>(卷28, 11741쪽)에서 神似를 중시하고 形似를 경시하여 모양보다는 정신을 취한 양응식의 서예 성취를 매우 높이 평가한 시들은 전형적인 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양응식의 글씨에 제하다(題楊凝式書)>라는 절구 한 수를 인용해본다.

俗書喜作蘭亭頂,<sup>20)</sup> 용숙한 글씨는 난정서의 걸모양만을 좋아할 뿐,  
欲換凡骨無金丹. 범인이 환골탈태하고자 하나 영단이 없다네.  
誰知洛陽楊風子, 누가 알겠는가, 낙양의 양응식이 있어서,  
下筆却到烏絲欄. 붓을 대기만 하면 난정서의 신운을 얻는 것을.

烏絲欄은 烏絲欄으로도 쓰는데,<sup>21)</sup> ‘到烏絲欄(오사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구의 의미는 붓을 대면 문득 왕희지가 쓴 《난정집서》의 神韻을 얻었다는 것이다. 신운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神似를 중시하고 形似를 경시한 황정건이 서예 이론을 펼칠 때의 주장과 서로 통한다. 황정건은 《난정집서》를 걸모양만 판박이로 모방하는 당시 유행하였던 학습기풍에 대해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난정서에 붙인 둘째 발문(又跋蘭

20) 이 구절의 ‘俗書喜作’은 ‘世人但學(세상 사람들은 단지 배우네)’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21) 烏絲欄의 의미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희지가 《난정집서》를 쓸 때 사용했던 종이가 烏絲欄蘭紙였다고 한다. 둘째, 중봉으로 용필하는 것을 말하는데, 《書法三昧》에서는 “오사란이란 붓끝이 중앙에 있다면 양쪽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烏絲欄者, 鋒正, 則兩旁如界也)”고 하였다.

亭)>에서 “난정서는 비록 眞行書의 비조이긴 하지만 반드시 한 자 한 획을 표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비유하자면 주공과 공자가 작은 허물이 없을 수 없지만, 이 작은 허물이 그들의 총명함과 지혜와 성스러움을 해치지 않으므로 성인인 것과 같은 것이다. 잘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성인의 허물이 있는 곳을 배우기 때문에 한 쪽에 막혀 버리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 난정서를 배우는 자들 중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많다.”라고 하였는데,<sup>22)</sup> 양응식이 전대 서예가들의 글씨 형체보다는 그 글씨 속에 담긴 정신을 취했던 서예학습 방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황정건의 이러한 서예론은 <왕희숙이 소장한 당나라 본 초서가를 보다 (觀王熙叔唐本草書歌)>(外集 卷12, 11633쪽)라는 다음 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少時草聖學鍾王，	어릴 때 초성을 본받아 중요와 왕희지를 배워，
意氣欲齊韋與張。	의지와 기개는 위탄과 장지와 같고자 하였네.
家藏古本數十百，	집안에 옛날 판본 수백 종을 소장하고서도，
千奇萬怪常搜索。	천 가지 만 가지 기괴한 것을 항상 수집하였네.
今得君家一卷書，	오늘에야 그대 집안의 두루마리 글씨 하나를 얻고서，
始覺辛勤總無益。	지금껏 힘든 수고 모두 무익하였음을 비로소 느꼈네.
移燈近前拭眼看，	등불 옮겨 가까이 가서 눈을 닦고 보았더니，
精神高秀非人力。	정신이 고상하고 빼어남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네.
北風古樹折巔崖，	북풍에 마른 나무 깎아지른 단애에 걸려 있고，
蒼烟寒藤掛絕壁。	푸른 연기 찬 등나무 절벽에 매달려 있네.
逸氣崢嶸馳萬馬，	빼어난 기상 우뚝하여 만 마리 말이 달리는 듯하고，
隻字千金不當價。	한 글자가 천금에 달해 값을 감당할 수 없다네.
想初槃礴落筆時，	처음 다리를 쭉 펴고 붓을 댈 때를 생각해보니，
毫端已與心機化。	붓 끝이 이미 마음과 조화를 이루었을 것이네.

22)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上海遠東出版社, 1999.1) 卷4, 96쪽. <又跋蘭亭> “蘭亭雖是眞行書之宗，然不必一筆一畫以為準。譬如周公孔子不能無小過，過而不害其聰明睿聖，所以為聖人。不善學者，即聖人之過處而學之，故蔽於一曲。今世學蘭亭者，多此也。”

主人知是希世奇, 주인은 이가 세상에 드문 기이한 글임을 알뿐,  
 但見姓氏無標題. 다만 성씨만 쓰여 있고 낙관의 표제가 없다네.  
 自非高閑懷素不能此, 절로 고한과 회소 아니라면 이에 이를 수 없으니,  
 何必更辨當是誰. 무엇 때문에 이가 누구인지 굳이 분별해야 하리오.

이 시는 자신의 애호로부터 시작하여, 본론 부분에서는 초서의 신묘함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묘사하였고, 결미에서는 주장가의 부탁과 자기의 주장을 써서 시제와 서로 호응하게 하였다. 시 전체적으로 전개와 흐름이 거침없고 수미가 일관되며, 또 내용의 순서가 명확하고 풍부하여, 황정견 서론이 비교적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sup>23)</sup> 황정견은 서화 감상과 품평에 뛰어났기 때문에, 서화 주장가인 왕희숙이 낙관 없는 당나라 사람의 초서 목적을 감정 품평해 달라고 청하였고, 황정견은 이 작품을 보고서 오히려 글씨의 모양 그 자체보다는 서예가의 고상하고 초월적인 서예에 눈을 두었다.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예술 수준이 이미 그것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여, 이것이 당나라 때의 유명한 草書 大家로 書僧이었던 高閑의 작품인지 懷素의 작품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황정견은 고인의 필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지니고 있어 <검주에 있었을 때의 글씨를 논하다(論黔州時字)>라는 글에서는 “필획이 꺾일 때도 붓이 평평하게 펼쳐지며 필봉은 등글면서 굽지 않은 것이 비녀가 비록 굽지만 그 근본은 여전히 둥근 기세인 張旭의 折釵股,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내리는 듯한 기세인 顏真卿의 屋漏法, 왕희지의 송곳으로 모래에 획을 긋는 것 같은 필획인 錐畫沙와 인장을 인주에 찍는 것 같이 분명한 印印泥, 마치 새가 숲에서 날아오르고 놀란 뱀이 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통쾌한 懷素의 필의, 은 갈고리와 전갈 꼬리와 같이 굳세고 힘 있는 索靖의 銀鉤蠶尾 등의 필획은 모두 동일한 필법이다. 마음은 손을 알지 못하고 손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음과 손이 서로 하나로 통일되는 필법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sup>24)</sup> 이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붓 끝이 이미 마음과

23)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100-101쪽

조화를 이루었다.”는 의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황정건 서론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황정건의 서예에 대한 이론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다양하게 정리되기도 하였는데,<sup>25)</sup> 대체로 황정건의 이러한 서론은 그의 서예시에서 대부분 언급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 VI. 結 論

黃庭堅은 시인으로서 江西詩派의 우두머리로 송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학가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독특한 글씨로 인해 송대에서 가장 특이하고 독특한 서체를 구현한 서예가로도 유명하였다. 특히 중국 예술 문화에 있어서 황정건의 가장 큰 기여는 山谷體라 칭해지는 대담하고 비대칭적인 서예였는데, 황정건의 서예 스타일은 중국 서예사에 있어 가장 특이한 성취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서예 실천을 통하여 중국 서예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황정건의 서예는 중국 서예사에 있어서 상당

24)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上海遠東出版社, 1999.1) 卷5, 148쪽. <論黔州時字> “張長史折釵股, 顏太師屋漏法, 王右軍錐畫沙印印泥, 懷素飛鳥出林驚蛇入草, 索靖銀鉤蠶尾, 同是一筆法, 心不知手, 手不知心法耳.”

25) 황정건 書論과 書學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황정건 서론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尙韻崇晉, 尙意反俗, 以禪喻書(蔡顯良, <黃庭堅論書詩研究>, 《書畫世界》 第8期, 2006.8); 自成一派, 學養韻味, 以禪喻書(文師華, <論黃庭堅的書法美學觀和書法創作成就>, 《南昌大學學報》 第37卷 第2期, 2006.3); 內外兼修[重基本], 韻筆并重, 力求免俗, 自成一派, 勤學苦練(由興波, <黃庭堅書法藝術觀>, 《九江學院學報》 2005年 第2期); 免俗, 重韻, 求拙, 重筆, 自成一派(王水照·由興波, <論黃庭堅詩學思想和書法理論的互通與互補>, 《南昌大學學報》 第37卷 第2期, 2006.3) 등을 들 수 있고, 단행본으로 간행된 陳志平的《黃庭堅書學研究》(中華書局, 2006.10)에서의 章節 분류도 여타 연구 논문에서 설정한 범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吳光田의《黃庭堅書論全輯注》(河北教育出版社, 2008.7)에서는 황정건 서론의 범주를 본고에서처럼 論書, 品書, 學書, 鑑書, 傳書 등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題跋 등 散文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황정견 자신이 시인이면서 위대한 서예가로 황정견 자신이 창작한 서예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서예에 대한 이론을 담고 있는 서예시를 별도로 분석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서예와 회화에 관한 황정견의 관점, 그리고 그림과 필법의 상징적 특징들을 향한 열정 등은 황정견이 서화에 쓴 수많은 題跋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만, 題跋 뿐만 아니라 황정견의 시가, 특히 서예와 관련한 서예시에는 자신의 서예 이론 등이 잘 담겨져 있었다. 황정견의 전체 시 중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45題 50首 정도였는데, 이는 순수 書藝와 書論을 주제로 다룬 시 외에 紙筆硯墨 등 文房四友를 다루고 있는 시를 모두 포함한 양이다. 본고에서는 黃庭堅의 詩 중 서예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그의 서예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내용상 크게 學書[서예 학습], 品書[서예 품평], 論書[서예 이론] 등 3개 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황정견은 서예시에서 ‘서예를 학습하다’는 의미의 ‘學書’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황정견은 서예를 시작함에 누구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학습의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점에 비교적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황정견은 서예 학습의 최고 전범이 되는 전대 서예가로 王羲之를 첫째로 두었고, 다음으로 鍾繇, 韋誕, 張芝, 智永, 顏真卿, 楊凝式, 李建中 등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황정견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전해지는 서예 기초를 충실히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왕희지나 안진경처럼 서예 작품이 상당한 수준이나 최고 경지에 올라야 서예 학습의 전범이 될 수 있듯, 서예 작품에 대한 수준 높은 품평 역시 자신의 서예 수준이 상당한 경지 내지 최고 수준에 올라야 가능하다. 황정견의 서예시에는 전대 대서예가로 王羲之를 위시하여, 王獻之, 張芝, 大字인 瘞鶴銘 등의 필적을 서로 비교 품평한 것이 있고, 唐代 서예가의 필적으로 懷素와 顏真卿과 楊凝式과 李邕 등의 서예에 대한 품평이 있으며, 동시대를 살았던 송대 서예가로는 李建中, 王禹稱, 蘇舜元, 蘇舜欽, 王安

石, 蘇軾, 米芾 같은 유명인들의 필적에 대한 품평 등이 있었다.

황정건의 論書는 學書와 品書와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한 수의 시속에 서예 학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 뛰어난 전대 서예가의 서예 작품을 품평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면서, 이러한 시 속에는 황정건의 서예에 대한 이론, 즉 書論이 은연중에 융해되어 있었다. 황정건은 신운을 강조하여 神似를 중시하고 形似를 경시하였으며, 마음은 손을 알지 못하고 손은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음과 손이 서로 하나로 통일되는 필법을 주장하였고, 열심히 노력하여 自成一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황정건 서론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 <References>

1. *Quansongshi: Complete poetry of the Song* (all 72vol), No17v, PEKING UNIVERSITY PRESS, 1998.
2. *Complete Library in Four Branches of Literature, the Electronic Version of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Shanghai guji-chubanshe, 2007, 3. 0edition.
3. Huang Tingjian, *Shanguquanji: Complete poetry of Shangu* (1.2), Sibubeiyaoben, Taiwan Chunghwa book co, 1967.6.
4. Oh Tae-suk, *A Study of Huang Tingjian's Poe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1.5.
5. Tu youxiang, *Shangutiba: The Inscriptive Writings of Shangu*, Shanghaiyuandongchubanshe, 1999.1.
6. Wu guangtian, *Huang Tingjian Shulun Quanjizhu*, Hebei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08.7.
7. Chen zhiping, *The Study of Tingjian Huang's Handwriting*, Chung-hwa book co, 2006.10.

8. Yang keyan, *Shufayonglun*, Liaoningmeishuchubanshe, 1993.
9. Ou yangxiu, *Ouyangxiuquanji: Complete poetry of Ouyangxiu*. 2v, Yang Jialuo eds, The World Book Co, 1983, Taipei.
10. Su shi, *Sushiwenji: The Collection of Su shi's Works*(all 6vol), Kong Fanli eds, Zhongguogudianwenxuejibencongshu edition, Chunghwa book co, 1992.9, Beijing.
11. Li fushun, *Sushiyushuhuawenxianji*, Rongbaozhaichubanshe, 2008.6, Beijing.
12. Cai xianlia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n Song Dynasty*, Nanjing yishu xueyuan, Doctoral dissertation, 2007.5.
13. Cai xianlia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f Huang Tingjian*, The World of Chinese Painting and Calligraphy, Vol.8, 2006.8.
14. You xingbo, *Huang Tingjian's view of Calligraphy Art*, Journal of Jiujiang Teacher's College(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Edition), no.2, 2005.
15. Wang shuizhao·You xingbo, *Comparison Research of Huang Tingjian's Verse Theory and Calligraphy Theory*, Journal of Nanchang University(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37 no.2, 2006.3.
16. Wen shihua, *On Huang Tingjian's Calligraphy Aesthetic View and Calligraphy Achievements*, Journal of Nanchang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37 NO.2, 2006.3.
17.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Tang Dynasty*,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3, Th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8.12.
18.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Mei Yao-che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55, 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NAM, 2010.6.

19. Woo Jae-Ho, *Translated and Annotated of Chinese Calligraphy poetry ever(5-8): Song Age1-4*, The Translation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30-33, 2009.5~2010.11

<참고문헌>

1. 《全宋詩》(全72卷) 第17冊, 北京大學出版社, 1998.
2.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 黃庭堅, 《山谷全集》(1.2) 四部備要本, 臺灣中華書局, 民國56年.
4. 吳台錫, 《黃庭堅詩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91.
5. 屠友祥 校注, 《山谷題跋》, 上海遠東出版社, 1999.
6. 吳光田, 《黃庭堅書論全輯注》, 河北教育出版社, 2008.
7. 陳志平, 《黃庭堅書學研究》, 中華書局, 2006.
8.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9. 歐陽脩, 《歐陽脩全集》(上·下), 楊家駱 主編, 世界書局, 民國72年.
10. 蘇軾, 《蘇軾文集》(全6冊), 孔凡禮 點校,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2.
11. 李福順 編著, 《蘇軾與書畫文獻集》, 榮寶齋出版社, 2008.
12. 蔡顯良, 《宋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13. 蔡顯良, <黃庭堅論書詩研究>, 《書畫世界》 第8期, 2006年 8月.
14. 由興波, <黃庭堅書法藝術觀>, 《九江學院學報》 2005年 第2期.
15. 王水照·由興波, <論黃庭堅詩學思想和書法理論的互通與互補>, 《南昌大學學報》 第37卷 第2期, 2006年 3月.
16. 文師華, <論黃庭堅的書法美學觀和書法創作成就>, 《南昌大學學報》 第37卷 第2期, 2006年 3月.

17.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韓國中語中文學會, 2008年 12月.
18. 禹在鎬, <梅堯臣 書藝詩의 特徵>, 《中國語文學》 第55輯, 嶺南中國語文學會, 2010年 6月.
19. 禹在鎬, <中國歷代 詠書詩 譯註(5-8): 宋代1-4>, 《中國語文學譯叢》 第30-33輯, 2009.5~2010.11

### <Abstract >

Huang Ting-jian (黃庭堅, 1045~1105)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writers in the Song Dynasty as a head of the Jiang-xi school of poetry (江西詩派), and well known as a calligrapher who had the most extraordinary and unique style of handwriting. Since Huang Ting-jian was a writer and a great calligrapher, he wrote more than a few poems that can be categorized as calligraphic poetry, which well contained his theory of calligraphy. Among the poems written by Huang Ting-jian, those categorized into calligraphic poetry were 50 pieces under 45 titles,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of learning of calligraphy, evaluation of calligraphy and theory of calligraphy. At first, Huang Ting-jian put relatively many focuses on whom to teach and how to study in starting calligraphy. Huang Ting-jian put Wang xizhi as the best model of learning calligraphy and considered Zhong you(鍾繇), Wei dan(韋誕), Zhang zhi(張芝), Zhi yong(智永), Yan zhenqing(顏真卿), Yang ningshi(楊凝式) and Li jianzhong(李建中). The calligraphic poetry by Huang Ting-jian includes the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he handwriting style of the master calligrapher Wang xizhi(王羲之) as well as Wang xianzhi(王獻之), Zhang zhi(張芝) and Yiheming(瘞鶴銘) with

large letters, and comments on the handwriting style of celebrities, such as calligraphers in the Song Dynasty including Li jianzhong(李建中), Wang yucheng(王禹稱), Su shunyuan(蘇舜元), Su shunqin(蘇舜欽), Wang anshi(王安石), Su shi(蘇軾) and Mi fu(米芾). The calligraphic poetry by Huang Ting-jian included the learning and criticism of calligraphic works as well as the theory of calligraphy implicitly. Huang Ting-jian focused on expressing inner consciousness[神似] by emphasizing the superb spirit and ignored describing the appearance[形似]; claimed the handwriting style that unites the heart and hand;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to make every effort to learn calligraphy from the beginning to form a school on your own. Such claims were consistent in his theory of calligraphy.

Key Words : 黃庭堅(Huang Tingjian), 書藝詩(the poems on Calligraphy), 書藝觀(Calligraphy Aesthetic View), 學書(Learning of calligraphy), 品書(Evaluation of calligraphy), 論書(Theory of Calligraphy), 全宋詩(*Quansongshi: Complete poetry of the Song*)

